

2026년 성목요일을 맞아 사제·부제·신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바티칸 시국, 2026년 4월 2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가 성체성사와 직무 사제직의 제정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날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소명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와 형제적 애정,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관상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한 13,1). 그분의 ‘끝까지 이르신 사랑’ 안에서 우리 구원의 신비가 완성됩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쪼개어 나누는 빵이 되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교회에 사제직과 성체성사라는 무한한 선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성소는 바로 이 사랑에서 태어났으며, 우리는 온 삶을 이 사랑에 일치시키도록 끊임없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 온 여러분의 일상적인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외로움, 오해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바쳐 온 여러분의 ‘예’라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베푸십니다.

레오 14세 교황 성하께서는 희망의 희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말씀과 성사 거행, 그리고 날마다의 기도로 길러지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우정은 서품 직무의 영적 토대이며, 우리 독신 생활의 의미이자 우리가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교회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이 우정은 시련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며, 성소의 시작에서 드린 그 ‘예’라는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2025년 6월 26일, 레오 14세 교황, 교황청 성직자부가 주최한 사제들의 희년 연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제직은 단순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감사와 경이로움 속에 간직해야 할 선물입니다. 사제는 말씀과 성체의 사람이며, 자신이 거행하는 신비에 의해 날마다 빛어지는 존재입니다. 교황 성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없이 사랑하시는가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행하는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두 단어, 곧 ‘희생’과 ‘봉사’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희생은 그 가장 깊은 의미에서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어줌’, 곧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들, 성체성사 안에서 삶의 원천과 정점을 발견하는 이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동반하고 용서하며 위로할 힘을 받습니다.

봉사는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르 10,45) 하신 주님, 곧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분께서야말로 우리 서품 직무의 기준이십니다. 성체성사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 곧 자신의 삶을 모든 이를 위한 예물로 바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사목 활동은 참으로 복음적이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땅이 메마르고 씨앗이 싹트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린 사제,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제가 되십시오. 친교의 사람이 되고, 시노드적이며 선교하는 교회의 신뢰할 수 있는 표징이 되십시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쁘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사제로서 서로 깊이 일치되어 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들과의 친교 안에서, 성유 축성 미사 중에 사제 서약을 새롭게 하며, “깊은 성사적 형제애”로, 그리고 사제단 안에서 “특별한 사도적 사랑과 직무, 형제애의 유대로”(사제생활교령 8항) 서로 결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관대하고 겸손한 봉사를 통하여 ‘종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제 형제들에게도 각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오늘날 교회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온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기쁨을 간직하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형성해 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진실함과 열정,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사제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 모두를 맡겨 드립시다. 이 성목요일에 우리 앞에 열리는 여정을 성모님께서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겸손과 충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 가며,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님과 깊이 일치하는 은총의 성삼일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장관

✠카를로 로베르토 마리아 레다엘리 대주교
차관